

## 1. 풍토산 풍력발전소 주차장 / 밤

주변이 제법 어두워졌다.

아무도 남지 않은 풍력발전소 주차장 외경.

미유와 수원 차 외에 한 대의 고물 승용차만 덩그러니 남았다.

### <CUT TO>

풍력발전소 관리동 조명이 꺼지며

건물 안에서 지친 표정의 직원(50대, 남)이 나와 화장실 문을 잠근다.

아무 생각 없이 차로 가려다 주차장에 남아있는 미유와 수원 차를 보고

인상 쓰며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직원.

수원과 미유는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직원            저기요! 혹시 여기서 1박 하시려고요?

미유            네? 왜요?

직원            (귀찮은 듯) 하... 모르세요? 이 근처에서 실종사건 난 거?  
뉴스에도 나오고 시끌시끌한데.

미유            그거 경찰 조사도 끝났고...

직원            (인상 팍) 아 무슨 경찰 말을 끝이곧대로 믿어요? 다들 쉬쉬하고 있  
는 거라고요.

지금 봐요,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 여기서 사람 죽었다는 소문이 이미  
인터넷에 파다한데 참... 잠은 댁에 가서 주무세요. 여기 계시면 안돼  
요.

저희도 진작에 야간근무 없었어요.

수원            (뒤편 더 얘기하려는 미유를 제지하며) 네, 금방 짐만 정리하고 내려  
갈게요.

미유            (눈치) ...

직원            (시니컬하게) 더 늦기 전에 내려가세요.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아무도 책임 못 져요.

### <CUT TO>

할 도리 다했다는 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고물차에 타는 직원.

### <CUT TO>

차 안에서 직원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건다. 직원, 백미러로 주차장 보면  
짐 정리하는 것처럼 트렁크 문을 열고 짐을 보며 대화 중인 수원과 미유.

### <CUT TO>

수원과 미유, 어느새 저 멀리 산 아래로 사라지고 있는 직원의 차를 본다.